

지역 빅데이터 인재 양성 나선다

전북대, 빅데이터 청년인재 교육 운영대학 2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교육 운영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전제조건인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중심의 빅데이터 전문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5월 27일까지 36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전북대는 호남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나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 등 비 IT 계열 전공자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문학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IT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 취업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은 빅데이터 입문과정을 비롯해 프로그래밍 언어, 기계학습 실습 등이



전북대학교 전경.

교육되며,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소속 교수들이 교육에 참여한다.

양동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라도 지역 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전라도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거점대학교인 전북대의 의무"라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북대 여러 학과 소속 교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준 높은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최고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2019 학생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14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 지역별 보건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내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 앞서 부안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은영덕팀장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전체 훈련 참가자를 10개 조로 편성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유행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관리자,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과 보건소 업무담당자가 토론식 도상훈련과 시나리오별 위기상황 대응단계에 따라 역할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또 토론을 통해 훈련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가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학교에 감염병이 유입되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점검 실시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이하 전북보조기기센터)는 전북도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점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는 5월 9일 무주군 예체문화관, 5월 14일 리얼장애인복지센터, 6월 18일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4월까지 전주시, 부안군에서 이동점검을 실시해 해당 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11건 진행했으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9월 3일 장수군, 9월 26일 남원시, 10월 23일 군산시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보조기기센터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훈련, 개인 맞춤형 개조 및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20-3000)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교육지원청이 25일 '발로 걷고 귀로 듣는' 군산문화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군산교육지원청, 발로 걷고 귀로 듣는 문화교원 연수 실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25일 '발로 걷고 귀로 듣는' 군산문화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과거를 걸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근대문화유산교육'을 특색교육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근대역사 바로알기와 바

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문화교원연수는 매년 군산에 진입한 교사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이 군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군산근대역사에 대한 공감을 키우고 군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군산문화교원연수에서는 유·

초·중·고등학교 교사 약 30명이 참석해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산 알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수는 임피역, 신흥동 일본식 기옥, 근대역사박물관 등에 담긴 일제강점기의 일본 수탈의 역사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깃든 저항의 역사를 발로 걷고, 눈으로 살펴보고, 귀로 들으며 체험함으로써 독립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장은성 기자

전문기술부서관 양성 요람으로 '인기'

진안공고, 군 특성화고 발대식 개최... 맞춤형 교육 실시

진안공업고등학교(교장 권태순)가 전문기술부서관 양성 요람으로 거듭난다.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 고등학교인 진안공고는 26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진안공고는 지난해 7월 국방부로부터 기술부서관 양성 '공병운용 병과 군 특성화고'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군특성화고 학·군 제휴 협약'을 맺고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2학년 말에 공병운용 분야 25명의 학생을 선발해 3학년 1년 동안 지게차, 굴삭기 운용 등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2021학년도에는 통신 장비운용 분야에 추가 지정돼 2개 병과 50명의 미래부서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지난 3월 철원군 병영 및 안보체험과 4월 1주일간의 공병학교 위탁교육을 마쳤다. 또 지속적으로 태권도교육 및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입대 전 군생활 사전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군 생활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입대 후에는 지도교사들이 군 부대를 방문해 입대한 모교 병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해당 부대 지휘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수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직후 입대해 전문기술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며 이후 계속 기술부서관으로 근무하거나 희망에 따라 전역해 국방부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기술부서관 양성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3학년 재학 중 장학금 100만원, 입대 직후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되며 전문기술병 복무 중 장기부서관으로 임관도 가능하다. 입대 1년 후에는 e-MU(e-Military University)에 진학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국방부에서 대기업 등 우수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권태순 교장은 발대식에서 "미래의 군 첨단 기술 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확실한 목표 의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본인의 분야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우리 진안공고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재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14개 평생교육과정 개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 연계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원장 김대진)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고창군 연계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창 지역 평생학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14개 과정으로 확대 개설하여, 25일 수강생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앞으로 7개월간 고창캠퍼스에서 지역특화형 교육과정인 건설기계운전, 약용식물자원활용지도사, 정원관리, 식품가공교육과 취업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인 드론교육, 중국어회화, 심리상담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및 체육 과정인 라



인댄스, 천연염색 디자인, 노래교실 강사양성, 붓길따라 마음여행, 커피바리스타, 소도구를 활용한 고효율운동, 우쿨렐레 음악지도사 과정 등도 함께 운영된다.

김대진 원장은 "단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평생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순환 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민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진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